



# “질병 치료 위한 의사의 인간적 역할 많아야”

노워크·풀러턴 <한가정병원>



▲ <한가정병원> 브렌트 한 원장

“의사와 환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Norwalk와 Fullerton에 있는 <한가정병원 Han family Medical Group>의 브렌트 한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의사와 환자처럼 외형적 조건이 아닌 사람과 사람처럼 인간적인 관계의 만남이 질병의 치료라는 의사의 기능적 역할을 넘어 인간적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 원장은 단순히 질병 치료라는 물리적 결과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정신

적 안정까지 도모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한 원장은 11살 때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 1.5세대다. 그런 만큼 영어는 물론 한국어에도 능통하다. 어눌한 한국어가 아니다. 발음도 한국인처럼 또박 또박하고, 사용하는 어휘도 11세에 한국을 떠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어로 전문 용어도 술술 말할 정도로 어휘 수준도 높다. 한국어로 말하려고 해도 마땅한 단어를 알지 못해 결국 영어로 말하고 마는 1.5세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낳고 자라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다.

### ■ 환자 치료 시 인간의 존엄한 가치 전제 돼야

그는 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생물학에 관심을 가졌다. 과학에 대한 그의 호기심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명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그의 호기심은 UC샌디에이고에서 생물학 연구원으로 파킨슨병에 대해 연구하도록 했다. 인간 노화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됐다. 사람은 비록 늙어서 외적으로도 볼품이 없어지고 신체가 허약해지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가치관은 의사라는 직업인으로서도 환자를 만나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한 원장은 의사의 일차적인 역할은 질병의 치료에 있지만, 단순히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만으로 의사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의학적 치료 행위 못지 않게 환자와의 교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은 20~30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환자를 더 잘 파악하기 노력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다섯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열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환자를 더 잘 파악하고 이를 치료에 활용한다면 외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의 정신적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무형의 가치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한 원장은 의사가 된 이후 거의 대부분을 미국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했다. 그러다가 몇 달 전 한인 밀집 거주지인 Norwalk와 Fullerton에 <한가정병원>을 개원했다.

“저희 병원이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한인 시니어들입니다. 한인이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일천한 저에게 한인 시니어들은 그들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보여주는 한국적 인간관계와 문화적 행위에 아주 편하게 녹아 듭니다. 문화적 공감이지요.”

### ■ 한인 시니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 우려나

한 원장은 환자로 내원한 한인 시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면 젊은 의사와 시니어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돼 육체적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의사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 <한가정병원>의 브렌트 한 원장(가운데)은 환자의 몸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안정까지 도모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그와 함께하는 <한가정병원> 스텝들. 사진=한가정병원